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황 여 정**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계열, 진로 인식수준, 학벌주의 성향, 그리고 가정과 학교 내 사회적 관계, 지역규모, 지역평균 부모 직업지위 등이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벌중시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학업 스트레스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학업 스트레스 영향요인의 양상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드러내 주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부 외에 다양한 기회구조를 제공하고, 진로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학업 스트레스, 학벌주의, 진로인식, 사회적 관계, 다층모형

* 이 논문의 초고는 2007년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부문에서 입상발표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분들과 논문을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서울시에서 수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험(74%), 성적에 대한 부담 및 진로문제(55%)이며,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 역시 진로(61%)와 학업 및 학교부적응(59.2%)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연합뉴스, 2007. 9. 11). 이러한 결과는 우리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진로 및 학업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란 일상생활 중에 환경의 자극에 대해 겪는 어려움을 뜻하며, 현대인들은 아주 흔히 경험하는 현상이다. 즉, 스트레스는 삶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스트레스 없는 삶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면, 주어진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업에 쏟는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력을 중시하는 뿌리 깊은 숭문주의와 과도한 교육열, 그리고 입시경쟁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업 스트레스가 이미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ee and Larson(2000)은 한국 청소년들은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정도가 심한데, 이는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건전한 여가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살 원인에 대한 국제비교연구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대입경쟁으로 인한 공부압력이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최원기, 2004).

그런데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성취, 학교 적응, 우울증, 자신감 감소, 대인관계능력 저하, 비행, 자살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강승호·정은주, 1999; 문경숙, 2006; Hains and Szyjakowski, 1990; Siegel and Brown, 1988). 이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결코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 주로 개인차원의 특성에 집중해 온 감이 없지 않다. 그리하여 사회적 풍토나 그에 대한 인식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

심이 기울여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청소년기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대단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청소년기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업 스트레스’ 자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연구가 그리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스트레스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 결정 기제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인은 무엇인가?
2.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지각수준은 거주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가?
3. 성별에 따라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지각수준 결정요인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1)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학업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한 하위영역이므로, 이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상위 개념인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스트레스에 대해 개괄한 후,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스트레스는 흔히 사용되는 개념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반응중심모형(response-based model), 자극중심모형(stimulus-based model), 상호작용모형(interaction model)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강승호·정은주, 1999; 류진혜·김태성, 1998). 먼저 반응중심모형은 스트레스를 외적자극에 대한 생리적·심리적 반응으로 이해하며(Selye, 1985), 자극중심모형은

위협을 주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자극을 스트레스로 간주한다(김정원·신은영, 2001). 이에 비해 상호작용모형은 상술한 두 가지 관점보다 좀 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 간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과정이라고 본다. 이 같은 상호작용모형에서는 개인이 특정 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능력 간의 불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며, 현대에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류진혜·김태성, 1998; Lazarus and Folkman, 1984).

이처럼 심리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이해할 때는 스트레스 요인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주어진 스트레스가 개인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는가, 또 개인은 그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가운데는 분명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해 촉발되고 또 강화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개인수준에 국한시켜 논의하게 되면, 때로는 중요한 스트레스원(stressor)인 사회적 현상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채, 그 원인과 해결책이 개인으로만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상호작용 관점을 따르되, 스트레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거시적 관점으로 넓혀 스트레스 유발 인자로서 사회구조적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2)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생활사건의 갑작스러운 발생이나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심각하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개 평소 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긴장이나 사소한 일등 일상적인 사건에서 훨씬 더 빈번히 경험한다(Kanner et al., 1981). 학업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원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 학생들의 생활은 학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학업성적이 그 학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진로를 결정하는 핵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연구들이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박현선, 1998; 이유미, 1994).

이와 관련하여, 강승호·정은주(1999)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학습부진을 야기하며, 학습부진은 자아개념을 손상시키고, 좌절에 의한 비행과 탈선 등을 부추기며, 강박증, 우울증, 대인예민성, 불안, 적대감, 편집증 등 정신건강과도 높은 상관을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구나 극단적인 경우,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 전교조가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 2,356명 가운데 46.4%가 자살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그 첫 번째 이유가 성적비관(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경숙(2006)은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충동 간에 상당히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2. 학업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배경변인

먼저 학생의 개인배경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자녀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성별의 경우, 많은 연구들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강승호·정은주, 1999; 김정겸, 1987; 송순, 2000),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어(이명숙, 1995)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명숙(199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학업성적도 상위권인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는 아들에게 주로 집중되며 딸에게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를 드러내주었다.

연령에 대해서는 대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애숙, 1998; Samdal et al., 1998). 특히 최애숙(1998)은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하위영역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4학년은 6학년에 비해 가정환경이나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반면, 6학년은 상대적으로 학업 및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업난이도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기대치와 실제 수행능력간의 간극 확대를 경험할 확률이 커지며,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Socioeconomic Status: SES) 역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학업 스트레스만을 별개로 분리하여 다루지 않고 가정, 친구, 학교 등 관련요인을 포괄하여 측정한 청소년 스트레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과 스트레스 간에는 역상관을 보인다(박용자, 1989).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종합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 스트레스가 역상관이 아닌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다수 발견된다. 먼저, 이명숙(199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자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순(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 학력이 높은 경우, 아버지 직업위계가 높은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도 더 높는데, 특히 아버지 직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여타 스트레스와는 달리 학업 스트레스가 유독 SES가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손승영(2002)은 사회계층이 상층이거나 부모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모들은 암묵적으로 자녀가 부모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가업계승이나 지위재생산을 도구로 자녀를 압박하기 때문에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부모-자녀관계도 가정배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변인이다. 그간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이나 부모-자녀 간 대화의 정도(김경숙·박미금, 2000),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등(김명자 외, 2002; 채구묵, 1997; 홍상욱·엄경순·배옥현, 2003)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문경숙, 2006; 홍상욱·엄경순·배옥현, 2003).

2) 학교관련 변인

다음으로 학교 관련 변인들로는 재학 중인 학교급, 계열, 학업성적,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학교급의 경우에는 대체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김태련·박정애, 1998; 최애숙, 1998),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연령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증가할

수록 감당해야 하는 학습난이도가 상승하며, 그로 인해 실패를 맞볼 가능성이 커지고, 또한 입시에 대한 부담감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계열별로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보다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승호·정은주, 1999; 송순, 2000). 이는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입시, 내신성적 등과 관련해 더 높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업성적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학업성취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성적이 높으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김주연·김정순, 1999; 송순, 2000).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적과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이명숙, 1995).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교사와의 관계 및 교우와의 관계이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는 교사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학습을 위한 관계이지만, 학생은 학습과정에서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한 학생은 인간관계에서의 좌절감과 그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특히 중요하다(이진숙, 2002). 교우 관계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친구끼리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만의 문제해결전략을 논의하기도 한다(문경숙, 2006).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친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로의 전환을 악화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전영주, 2001; 최규련, 1999; Rubin, 1980).

3) 사회환경 요인

사회적 요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 내재된 강력한 학력주의, 학벌주의 풍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출신대학에 따라 대우를 받고, 그에 따라 직업과 임금이 결정되는 학력주의 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엘리트 문화를 지향하는 사회풍토와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개성 발달을 어렵게 하고, 좌절된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김주연·김정순, 1999).

학력주의 특성은 가정의 자녀교육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학업 스트레스를 증대시킨다. 학력이 과도하게 중시되는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의 성적이 곧 부모와 가족의 성공인 것처럼 인식한다. 따라서 자녀의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기대를 부여하거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실현하려는 대리성취를 강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시험불안을 강화시킨다(김경신, 1994; 김명자, 1994). 이처럼 학력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적 풍토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가정, 양측에서 강화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학력주의 사회에서는 ‘공부’외에 학생 개개인이 지닌 여타 소질이나 적성은 상대적으로 경시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로 인해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고교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연구한 김명자 외(2002)의 연구에 따르면, 면담에 응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하였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기가 반영되어 교육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들은 성적으로 인한 평가와 차별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위 연구의 제언은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구조로 말미암아 많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잘 드러내준다.

한편, 사회적 특성은 아니지만, 개인 외적 요인으로서 거주지 규모와 같은 지역 특성 역시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관련 연구들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학업 스트레스 양상에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도농지역 초등학생의 스트레스를 비교분석한 장영애(2006)에 따르면, 가정환경 스트레스는 농촌지역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학업영역과 교사·학교영역 스트레스는 도시지역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아동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도시아동의 경우 가장 큰 스트레스원이 학업요인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와 역함수

관계에 있는 '만족도'를 설명한 박영신 외(1998)의 연구에서도 가정생활만족도는 도시 학생들이 높지만, 학교만족도는 농촌 학생들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도시학생들이 학교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거주지 규모 외에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해당 지역의 질적 특성도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지역과 계층에 따른 아동들의 행복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으로 삼은 6개 학교 가운데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07. 5. 6). 또한 지난 해 전교조가 전국 고교생 3,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시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자살기도 경험이 있다는 학생 157명 가운데 대도시(5.7%)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보다 그 비율이 높았고, 특히 서울 강남지역 학생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국민일보, 2006. 12. 14).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강남과 같이 고학력·고소득 부모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중학교에서는 특목고 입시, 고교에서는 명문대 진학경쟁이 다른 지역보다 치열하기 때문에 그 만큼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상술한 한국사회의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지역특성 역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하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데이터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KYPS 중2패널 데이터 가운데 가장 최근에 수집된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도에 고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다. 표본은 4차년도 자료가 확보된 총 3,121명이 일차적인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에 충실하게 답한 2,385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주요 배경변인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분포

구 분		빈도(명)	비율(%)	계 (명, %)
성별	남학생	1,216	51.0	2,385 (100.0)
	여학생	1,169	49.0	
계열	일반인문계	1,827	76.6	2,385 (100.0)
	전문계	558	23.4	
거주지 규모	서울	353	14.8	2,385 (100.0)
	광역시	755	31.7	
	중소도시	1,069	44.8	
	읍면지역	208	8.7	

2. 변수설명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인은 KYPS 4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학업 스트레스 관련 문항이다. KYPS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은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그런 적 없다(=1)’ ~ ‘항상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5문항에 응답한 값을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5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는 먼저 학생 개인의 기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성별, 계열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착할 수 있는 소득,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등이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학생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여학생에게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사용되었으며, 계열은 재학 중인 고교 계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 인문계와

전문계(실업계)로 대별한 후, 전문계를 준거로 일반인문계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사용되었다. 가계소득은 지난 1년간 해당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연속변수로 조사한 값을 사용하되, 편포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로그(natural log)값으로 변환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¹⁾ 부모학력은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 혹은 양자(兩者)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자녀교육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가 어머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머니 학력을 사용하였으며, 교육연한으로 전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부모의 직업지위는 Ganzeboom and Treiman(1996)이 제시한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ISEI) of Occupational status의 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양친 모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 부모 중에 직업지위가 높은 쪽의 값을 사용하였고, 부모가 한 명만 있는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직업을 기준으로 직업지위를 결정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학교성적, 진로미성숙, 학벌주의 인식 등 3가지 변인이 추가되었다. 학교성적은 석차백분율로서, 본인의 학급 내 등수를 해당 학생이 재학중인 학급의 전체 정원으로 나눈 뒤 역산하여 변수값이 클수록 성적이 우수하도록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인식미흡은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아직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업의 종류, 성격 등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의 2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분석하여 투입하였다. 이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를 가지며, 따라서 변수값이 클수록 자신의 적성과 소질,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학력주의 풍토를 포착하기 위해 투입한 ‘학벌주의 인식’은 개인의 학력·학벌중시 성향을 묻는 5개의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치의 평균값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 문항들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척도를 가지므로, 변수값이 클수록 학벌주의 인식이 강함을 뜻한다.

한편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등을 투입하였다. 이 가운데 친구 관계, 교사 관계, 부모 관계 변인은 다문항 척도로

1) 실제로 월평균 가계소득 변인의 경우, 자연로그로 변환하기 전에는 편포도가 6.133이었으나, 자연로그로 변환한 후 -2.860으로 나타나, 분포의 형태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각각 해당 변인을 대변하는 2~4개의 문항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평균내어 모형에 투입하였다. 따라서 변수값이 클수록 관계가 좋음을 뜻한다.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변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중졸, 고졸, 초대졸(2~3년제), 대졸(4년제),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로 측정된 것을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개인수준 변인의 마지막인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은 흔히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이 문제가 되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능력 간의 간극이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가늠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이 변인은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기대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변수값이 클수록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능력 간에 많은 괴리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수준에서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가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의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학업 스트레스	진로인식 미흡	학벌주의 인식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신뢰도 (Cronbach's α)	.840	.740	.783	.850	.711	.616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수준의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여기에서 각 지역의 단위는 KYPS 데이터에서 구(區)나 시(市)단위로 코딩된 거주지 변인을 의미한다. 층화 다단계집락추출된 표본의 특성을 반영하고, 선행연구 검토결과 드러난 지역규모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요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투입된 지역수준 변인들은 지역규모, 지역평균 소득수준, 지역평균 어머니학력, 그리고 지역평균 부모 직업 지위가 포함되었다. 지역규모는 관련 선행연구들이 대도시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하여, 대도시를 준거집단으로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각각 더미변수로 설정해 사용하였다. 지역평균 소득수준, 지역평균

어머니학력, 지역평균 부모 직업지위는 각 개인이 응답한 값을 지역수준에서 평균내어 사용하였다. <표 3>은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표 3> 투입변인의 기술통계량(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명	전체	남학생	여학생
개인수준			
성별(여학생=1)	.49(.50)	-	-
계열(인문계=1)	.79(.41)	.78(.42)	.80(.40)
가계소득(natural log)	5.72(.45)	5.73(.47)	5.71(.44)
어머니 학력	12.21(2.48)	12.36(2.44)	12.05(2.51)
부모 직업지위	41.12(13.04)	41.16(13.36)	41.08(12.72)
학교성적	59.58(23.86)	58.90(24.29)	60.28(23.41)
진로인식 미흡	2.69(.98)	2.71(.97)	2.68(.98)
학벌주의 인식	3.82(.68)	3.83(.71)	3.81(.66)
친구와의 관계	4.20(.65)	4.23(.65)	4.18(.65)
교사와의 관계	3.26(.72)	3.28(.70)	3.24(.73)
부모와의 관계	3.53(.76)	3.48(.74)	3.59(.77)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16.23(1.40)	16.38(1.47)	16.08(1.32)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3.03(1.02)	3.05(1.03)	3.01(1.01)
지역수준			
지역규모(중소도시)	.44(.50)	.47(.50)	.37(.49)
지역규모(읍면지역)	.09(.29)	.07(.26)	.06(.24)
지역평균 소득수준	5.63(.29)	5.65(.28)	5.64(.28)
지역평균 어머니학력	12.16(1.37)	12.22(1.41)	12.24(1.17)
지역평균 부모 직업지위	39.50(6.28)	39.50(5.66)	40.03(6.20)
사례수	2,385명(133개 지역)	1,216명(109개 지역)	1,169명(100개 지역)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생-지역의 2수준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해보고자 하였다. KYPs 데이터는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지역-학교의 순서로 층화표집되었으며, 학업 스트레스는 해당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풍토나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영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개인이 집단에 내재되어 있고(nested), 그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가 설정하는 가설과 자료는 위계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 경우 만일 연구자가 단층적인 통계모형을 사용하면, 자료의 위계적 구조로 인해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타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강상진, 1995). 그러므로 분석의 단위를 고려한 추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처럼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다층모형이 적합하다(Raudenbush and Bryk, 2002).

물론 본 연구의 경우, 표집 특성을 고려하면 학생-학교의 2수준 다층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KYPs 데이터에는 학교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학생-학교의 다층모형 설정이 어렵다. 그렇지만 선행연구결과들이 지목하는 거주지 규모나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거주지를 상위수준의 분석단위로 설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지역의 2수준 분석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아래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층모형의 식이 제시되어 있다.

$$1\text{수준 모형} : Y_{ij} = \beta_{0j} + \beta_{1j}X_{1ij} + \cdots + \beta_{qj}X_{qij} + r_{ij} \quad (\beta_{nj}, q=0, \cdots, N)$$

$$2\text{수준 모형} : \beta_{0j} = \gamma_{00} + \gamma_{q1}W_{1j} + \gamma_{q2}W_{2j} + \cdots + \gamma_{qs}W_{sj} + u_{qj}$$

$$\beta_{1j} = \gamma_{10}$$

...

$$\beta_{qj} = \gamma_{q0} (Ws, s=1, \cdots, Sq)$$

여기에서 1수준과 2수준에 투입되는 변수들은 모두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중심점 교정(grand-mean centering)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다층모형분석에는 HLM6.01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전체 학생에 대한 분석결과

개괄적인 수준에서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해보기 위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기초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학업 스트레스 변인에 대한 집단 내 상관계수(ICC)는 .07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분산에서 지역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6%에 해당됨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 차이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보다는 개인차에 의해 결정됨을 뜻한다. 그러나 약 7.6%의 분산이 존재하며 그 분산에 대한 통계검증결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지역수준에서 이 같은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후의 분석이 진행되었다. 먼저 기본배경변인들이 투입된 모형 I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승호·정은주(1999), 김정겸(1987), 송순(2000)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여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에 더 취약함을 의미한다. 한편 계열별로는 예측한 바와 같이 전문계 고교생에 비해 일반인문계 고교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에 비해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으며, 명문대 진학을 둘러싼 경쟁도 보다 치열하게 경험하고, 학교 내에서 내신경쟁에 대한 부담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외에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을 포착하기 위해 투입한 소득, 모의 학력, 부의 직업 등은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II단계 모형에 추가된 학교성적, 진로인식수준, 학벌주의 인식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학교성적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이유에 관해서는 김명자 외(2002)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 단지 고통을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취감을 맛보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이라

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II단계 모형에서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진로인식 수준이 낮을수록, 학벌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학업 스트레스도 높게 인지한다는 점이다. 즉 자신이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향후 진출 가능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학생들은 보다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가 전적으로 개인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 수준에서 교육풍토 및 제도와의 일정부분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신호는 학벌주의 변인의 효과에서도 감지된다. 즉 높은 학력과 학벌을 획득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을 추가한 모형Ⅲ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등이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변인이 투입되면서 개인수준 분산의 설명력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27.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III단계 모형에서 투입된 변인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교사부모와 긍정적이고 풍부한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부모의 기대가 지나쳐 그것이 자녀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경우에는 학업 스트레스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밀착된 관계는 학업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기대와 관심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수준 변인들이 투입된 모형Ⅳ에서는 지역규모와 지역평균 부모 직업지위가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도시를 준거로 했을 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학생들이 모두 부정(negative)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중 중소도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이전 연구(장영애, 2006)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대도시지역 학생들이 여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좀 더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도시 학생들이 사교육환경에 노출될 확률도 더 높고, 또 학생 간의 경쟁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한편 부모의 직업지위가 높은 학생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평균 학업 스트레스 수준

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은 사회경제적배경에 따른 거주지분화와 그에 따른 교육열,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위직·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의 경우, 부모들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교육열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평균 학력수준도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성적을 둘러싼 경쟁도 더 치열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보다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아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전체 학생)

	기초모형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절편(전체평균)	16,1498 ***	16,1493 ***	16,1670 ***	16,1704 ***	16,1815 ***
개인수준					
성별(여학생)		.8107 *** (.2029)	.8946 *** (.1859)	.9747 *** (.1694)	.9343 *** (.1714)
계열(인문계)		2,2674 *** (.2381)	1,6735 *** (.2263)	1,5268 *** (.2046)	1,5319 *** (.2040)
가계소득		.0589 (.2043)	.0804 (.1913)	-.0063 (.1849)	.0128 (.1938)
어머니학력		.0391 (.0377)	.0189 (.0368)	.0080 (.0343)	.0033 (.0354)
부모 직업지위		.0034 (.0074)	.0033 (.0072)	.0092 (.1236)	.0010 (.0070)
학교성적			-.0137 *** (.0037)	-.0098 ** (.0033)	-.0098 ** (.0033)
진로인식미흡			.4251 *** (.1041)	.1971 * (.0994)	.1991 * (.0990)
학벌주의 인식			1,5347 *** (.1366)	1,2939 *** (.1216)	1,2876 *** (.1222)
친구와의 관계				.0092 (.1236)	-.0039 (.1218)
교사와의 관계				-.4728 *** (.1259)	-.4732 *** (.1257)
부모와의 관계				-.4357 ** (.1261)	1,2378 *** (.0860)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0045 (.0580)	-.0098 (.0576)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1,2327 *** (.0872)	1,2378 *** (.0860)

	기초모형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지역수준					
지역규모(중소도시)					-.4377 ~ (.2331)
지역규모(읍면지역)					-.1454 (.3099)
지역평균 소득수준					-.8365 (.6002)
지역평균 어머니학력					.0590 (.1298)
지역평균 부모 직업지위					.0429 ~ (.0251)
분산					
개인간 변량(σ^2)	14.5277	13.5300	12.3569	10.5270	10.5384
지역간 변량(τ_{00})	1.1924	1.1152	.8870	.8768	.8216
전체	15.7201	14.6452	13.2439	11.4038	11.3600
집단내 상관(ICC)	.0758	.0761	.0669	.0768	.0723
누적설명분산(R^2)					
개인수준		.0687	.1494	.2754	.2746
지역수준		.0647	.2561	.2647	.3110
전체		.0684	.1575	.2746	.2774

()안은 표준오차임.

~p<.10, *p<.05, **p<.01, ***p<.001

2. 남학생 및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 영향요인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우선 기초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총분산 가운데 2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학생 약 4.8%, 여학생 약 11.7%로서, 남·여학생 모두 스트레스는 거의 대부분 개인수준 변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역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남·여 모두 2수준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인투입을 통해 주어진 분산의 설명력을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순차적으로 변인을 투입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전체학생과 마찬가지로 계열변인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파악되어 일반계고 남학생들이 전문계고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인식미흡과 학벌주의의 효과도 검증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난 학업성적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성적효과의 추정치는 부정(negative)방향을 보이고 있어, 성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 변인의 효과는 전체 학생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교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밀착되어 있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더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은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학생들이 더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지위가 높은 학부모들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평균 학업 스트레스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는 여러모로 남학생과 상이한 점이 관찰되어 상당히 흥미롭다. 우선 계열에서는 여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에서는 부정효과가 관찰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의 경우, 전체 학생의 경우에는 추정치의 크기가 거의 0에 근사하며 통계적 유의미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추정치의 절대수치가 커지고 정적(positive)경향성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여학생은 남학생과는 반대로 부정 방향을 보이고,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고 있다. 즉, 여학생은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이다.

상술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정적효과를 보인 남학생과 부정효과를 보인 여학생의 결과가 상쇄되어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연유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성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볼 수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이 여학생보다 더 클 개연성이 있으며, 따라서 고소득 부모를 둔 남학생은 자신 역시 부모만큼의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경우, 자신이 대를 이어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반드시 공부를 잘 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부(富)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타개해나갈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결과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진로인식에 대한 변인에서도 일정부분 반영된다. 앞서 남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진로인식수준의 효과는 매우 미미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즉, 자신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가 여학생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변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여학생들은 학교성적 그 자체와 교사들과의 관계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다른 요인보다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자체에 대해 더 영향을 받고, 또 교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정 내 사회자본인 부모-자녀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변인으로 검증되었고,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대한 부담감 역시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지역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도 관찰되어, 전체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지역규모의 효과는 여학생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기초모형 분석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지역 간 학업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차이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 투입한 변인들로는 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표본에서 나타난 지역변인의 효과는 주로 남학생들을 매개로 표출된 것이며, 여학생에게는 그 영향력이 다소 미미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학생의 지역 간 학업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남학생 및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기초모형	연구모형	기초모형	연구모형
절편(전체평균)	15.6941 ***	15.7309 ***	16.5892 ***	16.6598 ***
개인수준				
계열(인문계)		1.4179 *** (.2893)		1.6239 *** (.2688)
가계소득		.3138 (.2760)		-.4692 ~ (.2670)
어머니학력		.0062 (.0527)		.0239 (.0445)
부모 직업지위		-.0038 (.0110)		.0004 (.0090)
학교성적		-.0015 (.0053)		-.0203 *** (.0037)
진로인식미흡		.3900 ** (.1458)		.0140 (.1016)
학벌주의 인식		1.3803 *** (.1844)		1.2300 *** (.1440)
친구와의 관계		-.1617 (.1973)		.1810 (.1557)
교사와의 관계		-.4405 * (.1757)		-.4935 ** (.1742)
부모와의 관계		-.4925 ** (.1858)		-.3633 * (.1611)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0331 (.0802)		.0363 (.0789)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		1.3417 *** (.1246)		1.0877 *** (.0970)

	남학생		여학생	
	기초모형	연구모형	기초모형	연구모형
지역수준				
지역규모(중소도시)		-.5621 ~ (.2660)		-.4315 (.3462)
지역규모(읍면지역)		-.3324 (.4236)		-.0813 (.4189)
지역평균 소득수준		-.5320 (.9727)		-.5105 (.8746)
지역평균 어머니학력		.0510 (.1570)		.0641 (.2378)
지역평균 부모 직업지위		.0447 (.0338)		.0242 (.0316)
분산				
개인간 변량(σ^2)	16.4771	12.1300	12.1754	8.7345
지역간 변량(τ_{00})	.8227	.4865	1.6085	1.3562
전체	17.2998	12.6165	13.7839	10.0907
집단내 상관(ICC)	.0476	.0386	.1167	.1344
누적설명분산(R^2)				
개인수준		.2638		.2826
지역수준		.4087		.1569
전체		.2707		.2679

()안은 표준오차임.

~p<.10, *p<.05,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견지되어오던 심리학적 접근에 보다 거시적인 사회학적 접근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를 조망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고등학생들은 학벌중시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할수록 학업 스트레스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질적 분석을 시도한 김명자 외(2002)의 연구결과가 양적

자료로도 뒷받침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인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연계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현하지 못한 채 명확한 진로를 찾지 못한 학생들은 그만큼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중첩된 부담감을 느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형성된 왜곡된 사회풍토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단지 개개인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 탐색에 소홀했던 탓으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상술한 결과는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학력'만을 중시해 온 우리사회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옳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력스트레스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보다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풍토나 교육방식에 의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장영애(2006), 박영신 외(1998) 등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 학생들이 보다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지위가 높은 고위 전문직 학부모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체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열이 강한 도시지역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이들 지역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좀 더 관심과 배려가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학업 스트레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양상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목한 사회적 관계의 효과는 전체표본과 남학생, 여학생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모두 학업 스트레스와 대단히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학교에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사회자본을 보유한 학생일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끼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문경숙, 2006; 이진숙, 2002; 홍상욱·엄경순·배옥현, 200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관계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절한 기대와 신뢰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학생의 능력을 초과하는 지나친 기대와 관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이는 과도한 교육열을 바탕으로, 자녀의 학업적 성공과 가정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한국사회에서 부모들의 지나친 성취압력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개연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Campbell(1994)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마저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결국 부모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은 성취압력으로 작용하며, 자녀의 학습에 대한 과잉관심으로 이어져, 자녀로 하여금 주체성과 자율성을 상실케 하여 도리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김명자 외, 2002).

한편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능력과의 간극이 자녀의 스트레스를 증대시키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가족공동운명체적 특성에도 관련지어 논의해볼 수 있다. 자녀의 성적이 곧 성공을 의미하고, 그 성공이 가족 전체의 성공과 동일시되는 한국사회에서(김경근, 2004), 부모의 기대와 본인의 능력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는 학생들은 자신이 부모의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생과 가족전체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연유로 학업 스트레스도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이미 사회적으로 심각한 징후들을 드러내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풍토와 교육방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만 매달리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들 역시 자녀가 비단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는 물론, 부모-자녀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에서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측이 긴밀히 연계하여 진학지도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진로지도’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기회구조를 통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변모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상진(1995). 다층모형의 방법론적 특성과 활용방법. *교육평가연구*, 제8권 제2호, pp. 63-94.
- 강승호·정은주(1999).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연구. *교육심리연구*, 제13권 제4호, pp. 405-424.
- 국민일보 2006년 12월 14일자. 우등생도 점수 부담 자살기도 잇달아.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395675&cp=nv> (검색일 : 2007년 9월 28일).
- 김경근(2004). *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 서울: 문음사.
- 김경숙·박미금(2000).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2권 제1호, pp. 33-45.
- 김경신(1994). 대입수험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자녀교육열과 대학입시*.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명자(1994). 대입수험생 가족의 전반적 현황 및 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자녀교육열과 대학입시*. pp. 85-122.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명자·이정우·계선자·박미석·송말희(2002). 고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2호, pp. 5-42.
- 김정겸(1987).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신은영(2001). 청소년기 스트레스 원인과 성격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사회교육과학연구*, 제5권 제1호, pp. 19-33.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주연·김정순(1999).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0권 제1호, pp. 252-261.
- 김태련·박정애(1998). 대학교육환경과 학습자의 만족도와의 관계. *교육행정학연구*, 제16권 제2호, pp. 239-258.
- 류진혜·김태성(1998).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제16권 제1호, pp. 211-232.
- 문경숙(2006).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

- 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제27권 제5호, pp. 143-157.
- 박영산·곽금주·김의철(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3권 제1호, pp. 79-101.
- 박용자(1989).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부모-자녀 관계와 공부압력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6호, pp. 93-118.
- 손승영(2002). 수험생 어머니의 인식과 생활변화에 대한 계층별 분석. 사회발전연구, 제8권, pp. 127-146.
- 송순(2000). 전북지역 고교생의 사회인구학적, 심리·환경적 특성과 대처방법이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제3호, pp. 171-187.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년 9월 11일자. 서울청소년, '화목한 가정이 행복조건 1순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0254074&>(검색일: 2007년 10월 13일).
- 이명숙(1995). 청소년의 공부 스트레스 대처방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유미(1994).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2). 중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2006).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7권 제1호, pp. 39-53.
- 전영주(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호, pp. 151-167.
- 채구묵(1997).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치유방안: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10권, pp. 227-252.
- 최규련(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 및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2호, pp. 99-111.
- 최애숙(1998). 초등학교 아동의 심리적 환경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교육발전논총, 제20권 제1호, pp. 176-178.

- 최원기(2004). 청소년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8권 제4호, pp. 5-30.
- 한겨레(2007. 5. 6). “시골·강남 아이들은 행복? 어른들의 착각”.
- 홍상욱·엄경순·배옥현(2003). 현대가족에서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제8권 제1호, pp. 139-155.
- Campbell, J.R.(1994). Developing cross-cultural/cross-national instrument: Using cross-national methods and proced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21, pp. 675-684.
- Ganzeboom, H. and Treiman, D.J.(1996). Internationally comparable measur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199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5, pp. 201-239.
- Hains, A.A. and Szyjakowski, M.(1990). Cognitive stress-reduction inter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7 No. 1, pp. 79-84.
- Kanner, A. D., Coyne, J.C., Schaefer, C. and Lazarus, R.C.(1981). Comparison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4 No. 1, pp. 1-29.
- Lazarus, R.S. and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M., and Larson, R.(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9 No. 2, pp. 249-271.
- Raudenbush, S. and Bryk, A.(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 CA: Sage Publications.
- Rubin, Z.(1980). *Children's friendship*.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dal, O., Nutbeam, D., Wold, B. and Kannas, L.(1998). Achieving health and educational goals through schools - a study of the importance of the school climate and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school.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 13 No. 3, pp. 383-397.
- Selye, H.(1985).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stress concept. In A. Monat

and R.S. Lazarus(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pp.17-2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iegel, J.M. and Brown, J.D.(1988). Prospective study of stressful circumstances, illness symptoms, and depressed mood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4 No. 5, pp. 715-721.

ABSTRACT

The Determinants of Perceived Academic Stress as Experienced by High School Students

Hwang, Yeo-Jung*

Using a sample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tress experienced by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multilevel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are more likely to be under stress if they are female, academically incompetent, and belong to general high schools rather than vocational ones. Moreover, students who are either highly motivated by or influenced by credentialism, and lack information about their own future careers tend to be more anxious about their studies than those who do not. This means that, in Korean society, where credentialism prevails, adolescents have a high degree of stress because they are forced to improve their academic abilities without any concomitant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aptitudes or to receive career guidance. In addition, the finding that male students experienced greater academic stress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when their family income is higher reflects both a patriarchal climate and also reflects the gender-role differences between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in Korean society. Moreover, the results which indicate that students experienced greater academic stress when they lack social capital means that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students who are isolated from their families, friends, and school teachers.

* Korea University

Key Words : academic stresses, credentialism, career perception, social relationship,
multilevel modeling

투고일 : 6월 11일, 심사일 : 7월 22일, 심사완료일 : 8월 11일